2017. 8.

《2017. 6. 28.(수) ~ 7. 4.(화), 일본 - 北海道(홋카이도)》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정책연수 결과 보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Contents

목 차

Ⅰ. 연수개요 ····· 1

[1] 목 적 ····· 1

[2] 현 황 ····· 1

[3] 내 용 ····· 1

[4] 주요일정 ····· 2

[5] 연수자 명단 ····· 3

Ⅱ. 연수내용 ····· 4

[1] 치토세시 환경센터 ····· 4

[2]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 11

[3] 삿포로시 사회종합복지센터 ····· 16

[4]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 19

[5] 다테시 안심하우스 ····· 26

[6] 기타 탐방지역 ····· 32

Ⅲ. 총 평 ····· 36

환경복지위원회 공무국외정책연수 결과 보고

Ⅰ 연 수 개 요

1 목 적

○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주요 환경·복지시설 및 생태관광지역의 개발사례 등을 시찰한 결과를 일본의 선진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발전적 정책방향 모색

○ 환경 · 복지 · 생태관광 분야의 제도 및 시설 뿐만 아니라 운영의 성패를 결정짓는 현지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도 등을 직접 견문

○ 선진지 견학을 통해 환경복지위원의 창의적 인식개선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2 현 황

○ 연수기간 : 2017. 6. 28(수) ~ 7. 4(화) [6박 7일]
○ 방 문 국 : 일본 北海道 (홋카이도)
○ 방 문 단 : 12명
- 의 원(7) : 환경복지위원 7
- 전문위원실(5) : 의원보좌 3, 정책연구 2

3 내 용

○ 폐기물처리 운영사례 비교를 위해 치토세시 환경센터 방문

○ 지역 노인복지정책 이해를 위해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및 일선 주민 복지시설로서 삿포로시 사회종합복지센터 방문

○ 생태관광 개발·운영·주민참여 등 정책비교를 위해 일본 최초 람사르 등록습지인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방문

○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복지 운영사례인 다테시 안심하우스 방문

○ 도심공원 개발, 문화유산 보전 및 자연환경 이용 사례 벤치마킹

4 주요일정

일자	방문지역	일 정	비고
6. 28(수)	전주 ⇒ 치토세	○ 도의회(12:00), 인천공항 출국(18:40) ○ 치토세 국제공항 도착(21:20) ○ ANA 크라운 치토세 호텔 체크인	1일차
6. 29(목)	치토세 ⇒ 삿포로	○ **치토세시 환경센타 방문** ○ **삿포로시청 보건복지국 방문** ○ 홋카이도 구청사, 오도리 도시공원 관람 ○ 삿포로 뉴오타니인호텔 체크인	2일차
6. 30(금)	삿포로 ⇒ 유바리	○ **삿포로시 사회종합복지센터 방문** ○ 모에레누마공원(전 쓰레기매립장) 관람 ○ 유바리 슈파로호텔 체크인	3일차
7. 01(토)	유바리 ⇒ 쿠시로	○ 후라노 팜 도미나 농장 견학 ○ 쿠시로 이동 ○ 쿠시로 프린스호텔 체크인	4일차
7. 02(일)	쿠시로 ⇒ 노보리베츠	○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방문** ○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관람 ○ 노보리베츠 만세각호텔 체크인	5일차
7. 03(월)	노보리베츠 ⇒ 치토세	○ **다테시 안심하우스 방문** ○ 쇼와신산, 아이누족 민속마을 관람 ○ ANA 크라운 치토세 호텔 체크인	6일차
7. 04(화)	치토세 ⇒ 전주	○ 치토세 국제공항 출발(08:55) ○ 인천국제공항도착(11:55) ○ 전주도착(17:30)	7일차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 문	비 고
계		12명		
위 원 회 (6명)	위 원 장	최 훈 열	CHOI HUNYEUL	男
	부위원장	정 호 윤	JUNG HOYUN	男
	부위원장	최 명 철	CHOI MYOUNGCHEOL	男
	위 원	국 주 영 은	KOOK JUYEONGEUN	女
	위 원	김 영 배	KIM YOUNGBAE	男
	위 원	송 성 환	SONG SUNGHWAN	男
	위 원	이 호 근	YI HOGEN	男
전문위원실 (5명)	전문위원	나 종 채	NA JONGCHAE	男
	주 무 관	문 민 수	MOON MINSOO	男
	주 무 관	김 창 현	KIM CHANGHYUN	男
	주 무 관	김 태 균	KIM TAEGYUN	男
	주 무 관	최 성 철	CHOI SEONGCHEOL	男

Ⅱ 연 수 내 용

1 치토세시 환경센터

❑ 방문목적

- 환경센터 운영현황 청취, 현지 시설 견학,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재활용 등 자원화 방안 비교 견학
-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갈등, 환경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처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시민참여도 등 벤치마킹

❑ 방문개요

- 일　　시 : 2017. 6. 29.(목) 10:00
- 장　　소 : 환경센터 브리핑실, 현지 운영시설 등
- 면 담 자 : 酒井 계장
- 진　　행 : 현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 VCR 시청 → 소각처리장 주요시설 견학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주요내용

치토세시 환경센터

- 위　　치 : 北海道千歳 市美々 ７５８－５４
- 준　　공 : 1990년 2월 (개조공사 2000. 3. ~ 2005. 3.)
- 시설규모 : 195t/日 (97.5톤/24시간×2로) / 10,000㎡
- 운영방식 : 연속 점화방식 소각로, 스토커 식 연소 장치

- 각 가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휴지 등), 태울 수 없는 쓰레기(플라스틱, 가죽, 고무, 금

속, 유리 등), 플라스틱 제 용기 포장(병, 과장봉지 등), 유해 쓰레기(전지, 형광등 등), 재활용자원(페트병, 캔 등), 대형쓰레기(가구, 자전거, 이불 등), 사용된 소형 가전(컴퓨터,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등), 집단자원 회수물(신문, 고철류, 종이팩 등)으로 구분

- 위와 같이 구분된 쓰레기는 환경센터 계량소를 통과한 후 분류되어 소각, 파쇄, 유해물보관, 재활용 또는 민간의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매립, 배수, 전문처리사업자로 처리됨

- 견학 장소인 소각처리장은 시설과 장비는 현대적인 시설로 기계화 된 중앙 관리실에서 집중제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처리공정이 능률적이고 위생적이며 안전관리도 충분히 고려

- 소각 처리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열은 소각 시설의 급탕, 난방 및 인접한 슬러지 센터의 슬러지 건조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시설임

- 가연성 쓰레기는 우선 플랫폼으로 반입된 쓰레기 구덩이에 투입하고, 쓰레기 구덩이는 악취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부압으로 유지

- 쓰레기는 소각로 상부에 설치된 호퍼에서 소각로 내로 공급되며, 일단 점화가 시작되면 쓰레기 자신의 열에서 새로운 쓰레기를 건조 점화시키면서 태우고 있으며, 소각로 내는 800 ~ 950℃의 고온으로 연소하여 다이옥신과 냄새 성분까지 열분해 시킴

- 배기가스 등은 특수 유리 섬유로 짜여진 직물 등을 통해 분진 등을 포집하여 처리, 소각재는 재구덩이를 통해 별도 처리

- 시설 내의 각 기기의 상태는 중앙 제어실에서 컴퓨터 분석 및 데이터 처리를 통해 집중 감시, 제어되고 있음

❑ 질의사항

- 한국의 경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데, 치토세 쓰레기 처리시설 도입 시 인근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 일본에서는 소각장이 특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지는 않으며, 약간의 생활 방해시설 정도로 생각되고 있음
  ↳ 치토세시 소각처리장은 처음부터 인근에 주민이 없는 지역에 건설되어 위치상 주민반대가 없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잡았음

- 쓰레기 처리시설 도입때,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지?
  ↳ 시설 설치시부터 인근 주민이 없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았고, 지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다이옥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본 소각처리장은 1990년에 준공되었으나, 이후 2000년경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어, 다이옥신 대책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였음
  ↳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이 많은 비닐류에 대한 분류를 철저히 하고, 고온처리(800℃ 이상), 급냉, 집진, 약품처리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현재 1기준 대비 0.0014발생 수치로 굉장히 낮은 량의 다이옥신만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소각장에는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배출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 하고 있는데, 치토세시는 어떤지?
  ↳ 치토세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월 1회 소각처리장의 다이옥신 발생농도에 대해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아래 도표 사진)

焼却処理場のダイオキシン類濃度測定結果

【排ガス】

単位：ng-TEQ/m^3N

	1号炉	2号炉	小動物焼却処理場	排出基準
平成20年度	0.0043 (平成20年10月 7日採取)	0.00041 (平成20年8月27日採取)	0.35 (平成20年10月 8日採取)	1 (小動物焼却処理場の排出基準は10)
平成21年度	0.0025 (平成21年10月 1日採取)	0.0078 (平成21年8月28日採取)	0.000020 (平成21年10月 2日採取)	
平成22年度	0.00012 (平成22年10月28日採取)	0.010 (平成22年9月9日採取)	0.0022 (平成22年10月29日採取)	

備　考

焼却処理場のダイオキシン類濃度測定は、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第4条の5「維持管理基準」及び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第28条により、毎年測定を実施しています。

まめ知識

ダイオキシン類とは？

一般にポリ塩化ジベンゾ-パラ-ジオキシン(PCDD)とポリ塩化ジベンゾフラン(PCDF)をまとめて『ダイオキシン類』としていましたが、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において、PCDD及びPCDFに、コプラナーポリ塩化ビフェニル(コプラナーPCB)を含めて、『ダイオキシン類』と定義されました。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 및 지자체의 노력은 어떠한지?
  - ↳ 동네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분리배출을 유도함
  - ↳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노인과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 또한, 치토세시에서는 쓰레기의 적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치토세시 쓰레기 검사기'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하여, 품목을 클릭하면 타는 쓰레기와 태울 수 없는 쓰레기 등 분별하는 구분과 코멘트 등이 표시되고, 또한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수거일자 및 코멘트 등을 표시하는 '쓰레기 달력'을 게재하여 쓰레기의 적정한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음

- 소각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하는지? 아웃소싱 방식인지? 노사분규 발생은?
  - ↳ 쓰레기 처리기술은 전문회사 위탁이 효율적이므로 민간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일본은 경영자나 노조가 대립되는 세력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 우선이라는 노사관계 특성과 노사문제가 사내 타협, 알선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노사분규는 발생하지 않았음

❑ 착안사항

◉ 악취·해충없는 쾌적한(?) 소각장 운영

- 치토세시 환경센터 계량소부터 브리핑룸, 소각시설 등을 견학하는 동안 악취나 해충이 거의없이 쾌적함이 인상적

  * 지난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악취가 풍기고 파리떼가 들끓었던 경우와 비교

- 치토세시 시민들도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직접 가져와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음 (아래 사진)

- 이는 집진장 환기 방식 개선을 통하여 밖으로 냄새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 알기 쉬운 종량제 봉투,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수거 유도

- 종량제 봉투를 가연성(노란색), 비가연성(파란색)으로 색깔로 구분하고, 또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 특히 노인층 분리수거를 알기 쉽게 배려
- 휴대폰 등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연성/비가연성 쓰레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요일별 쓰레기 수거 품목을 안내하여 주민 편의 제공
- 주민에게 친숙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 처리기술 강화로 다이옥신 발생량 저감

-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낮은 온도에서 태울 때 많이 발생하므로, 치토세시 환경센터에서는 시설 가동 이후 5년에 걸쳐 별도로 다이옥신 대책공사(고온처리, 급냉, 집진, 약품처리 등)를 진행하여 다이옥신 발생량을 저감시킴
- 처음부터 플라스틱·비닐류 등이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분류를 철저히 하고 있음
- 치토세시 홈페이지에도 다이옥신류 농도를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민·관이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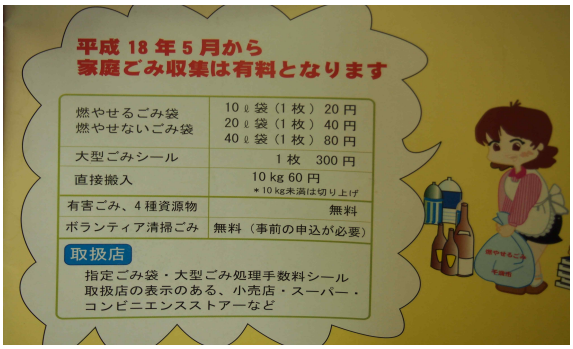
❑ 방문사진



치토세시 환경센터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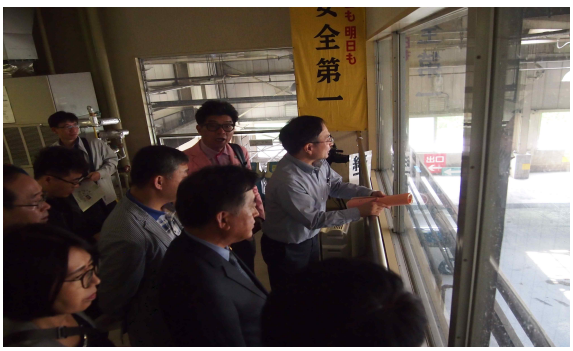
환경센터 개요 설명



종량제 봉투 가격, 판매점



종량제 봉투 (소각용)



시설 내부 견학



시설 내부 견학



기념품 전달



기념 촬영

2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 방문목적

- 전북도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삿포로시의 초고령사회 대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 관련사업 파악과 전북도 정책반영 검토
- 삿포로시 지역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방향 이해와 벤치마킹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7. 6. 29.(목) 14:00
- 주　　소 : 삿포로시 주오구 북1조 서2쵸메
- 면 담 자 : 고령복지과 후다미氏
- 홈페이지 : http://www.city.sapporo.jp
- 내　　용 : 고령사회의 현상과 복지정책, 개호보험 등 설명 청취

❑ 주요내용

- 삿포로시 인구 196만명, 노인인구 50만명(24.5%)
-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7% 이상 → 고령화사회, 14% 이상 → 고령사회, 21% 이상 → 초고령사회」로 나눌 수 있는데, 삿포로시는 초고령사회에 해당
- 일본 전체적, 그리고 삿포로시의 고령화율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 고령자 1명을 2010년에는 현역세대 3명이 부양하였으나, 이 추세로 고령화될 경우 2035년에는 현역세대 1.5명이 부양해야 함
- 「고령화사회→고령사회」의 도달기간을 비교했을 때 일본 전체가 24년이 소요된 반면, 삿포로시는 16년 소요되어 삿포로시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 노인 의료복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전체적으로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을 시행하고 있음

참 고

▣ 일본의 개호보험

○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본의 보험제도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개호보험의 보험자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점이 특색

○ 질병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수발·간병보험

○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995년 31%에 육박하자, 노인의료비로 인해 의료보험이 원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노인을 위한 전문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 4월 도입하여 의료보험과 별도로 구분

○ 만 40세 이상 주민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 필요시 비용의 10~20%를 지불하여 방문개호, 통원개호, 복지용구 대여,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 등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삿포로시의 개호보험】

○ 삿포로시에서 만 40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반드시 개호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다름

○ 개호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호 서비스는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며,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청의 사전 인정이 필요

➡ 일본은 신규신청자에 한해 반드시 **보험자인 지자체(시정촌)의 직원의 사전 방문조사가 필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 2008년 7월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및 사회적 리스크의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 모든 건강보험제도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일본은 40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겸임

➡ **우리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조사**

- 삿포로시의 특징으로 「**경로우대승차증제도**」를 들 수 있음
  - 시내공공교통기관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승차증으로 2013년 기준 70세 이상 인구 315,000명 중 211,000명의 노인에게 제공
  - 연간 7만엔까지 가능하고 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이용자는 10~24.3%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음 (삿포로시 1년 보조금 예산 35억엔)
  - 일본 다른 지자체는 노인들에게 교통비의 반액을 부담시키거나 잘사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 요인이므로 폐지하는 추세)

❑ 기타사항

-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심 관광을 하는 **포로클(ポロクル) 서비스**
  - 24시간 동안 제한없이 대여, 반납이 가능하며 휴대전화와 여권만 있으면 16세 이상 누구나 대여 가능 (1일 패스권 1,080엔)
  - 지하철, 택시에 비해 삿포로 **도심관광에 최적화된 교통수단**



삿포로 시청 1층 공용자전거 보관소

❑ 착안사항

◉ 일본의 개호보험의 특징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개호보험의 보험자로 되어 있어, 개호보험을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특징적
- 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 및 재인정의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지자체(시정촌)의 직원이 사전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
- 시정촌 직원이 개호보험 등급을 조사하는 경우 시정촌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복지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함은 벤치마킹 검토 필요

◉ 삿포로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우대승차증 제도

- 1년 35억엔의 예산을 써가면서 일본내 다른 지자체에서 재정압박을 이유로 폐지 추세에 있는 경로우대승차증 제도를 유지
-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특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삿포로시 실정에 맞게 제도를 유지・운영하는 데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엿볼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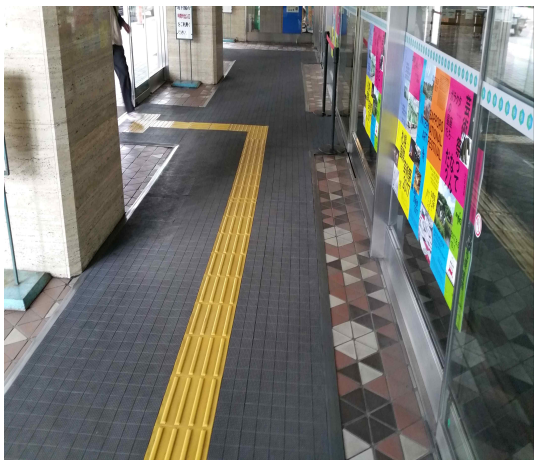
◉ 자전거 이용 관광 활성화

- 자전거를 공동으로 일상적인 통근・통학 뿐만 아니라 관광에 이용
- 시내관광의 경우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주차 문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전거 대여를 통한 관광은 편리하며, 색다른 느낌
- 또한, 포로클 최대 장점은 빌리는 포트와 반납 포트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이용 후 가까운 포트에 반납 가능
- 도내 관광지 및 도심권에도 자전거 대여 및 반납 편의성 도입 검토

❑ 방문사진



삿포로시청 전경



시각장애인 유도선
(원래 바닥이 아닌, 별도 매트를 깔았음)



의회 의원 재실 현황판 (시청입구)



보건복지국 업무 설명·청취



기념촬영



공용자전거 보관·대여장소
(시청로비옆)

3 삿포로시 사회종합복지센터

❑ 방문목적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거점시설로서 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주요시설 및 서비스, 주민 이용도 등 견학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7. 6. 30(금) 10:00
- 주　　소 :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 서쪽 19-1-1
- 면 담 자 : 총무부 오쿠무라 氏
- 내　　용 : 운영현황 청취 → 시설견학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주요내용

- 삿포로시 사회종합복지센터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동 센터는 시민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복지를 한 단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 1층 방문자 휴게공간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보육센터, 각종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스로 구성
- 2층은 60세 이상 건강증진, 교양교육 등 중앙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센터는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작업체를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담당(모든 보조기기에는 제조회사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

❑ 질의내용

- 연간 이용자 수는?

↳ 시설이용자 및 장비 등 임대이용자를 합하여 9만 5천명 정도

↳ 주로 고령자, 장애인 위주로 이용하며, 아동・청소년의 이용율은 낮음

- 삿포로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가 제설작업에 봉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적설량이 많지 않아 낫설은 제도임. 적지 않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 눈이 많이 내리는 삿포로시에서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센터직원(200여명)과 헬퍼(자원봉사자 1,300여명) 등 1,500여명이 눈을 치우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50억엔의 예산을 투입

- 삿포로시 인구대비 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복지센터 개수 또한 적지 않나? 센터 증설에 대한 유권자인 시민의 요구가 많지 않은지?

↳ 센터의 공간이 협소하다고 볼 수는 있음. 그러나 시설에 대한 불만은 없으며, 센터 개수 증설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음

❑ 착안사항

◉ 눈이 많이 오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 어느 누구도 고립된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념에 따라 제설작업을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추진함은 노인, 장애인 등 시민 한 명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실감

◉ **사회복지 시설은 이용하지만, 증설은 갈망하지 않는 일본인**

- 삿포로시(인구 196만) 10개구가 본 시설을 전부 이용하여, 인구나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할 때 동 센터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일선 시·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시설보강 및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일본 국민 정서의 특성이라고 차치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음

❑ 방문사진

<table>
<tr><td></td><td></td></tr>
<tr><td>복지센터 업무현황 설명·청취</td><td>복지용구 설명</td></tr>
<tr><td></td><td>
</td></tr>
<tr><td>복지용구 체험</td><td>기념촬영</td></tr>
</table>

4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 방문목적

- 일본 홋카이도 동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28,780ha의 광대한 습원으로 일본 28번째 국립공원 및 최초 람사르조약 등록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성장하여 연 200만명 관광객 유치
- 습지 덕분에 먹고 산다는 정도로 습지의 가치를 발견한 주민 상당수가 생태관광산업에 종사하는데, 향후 전북의 산림 및 해안을 활용한 생태관광 발전방향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방문개요

- 일　　자 : 2017. 7. 2(일) 09:00
- 주　　소 : 쿠시로시 호쿠토 6-11 (전망대)
- 방 문 지 : 쿠시로습원전망대, 국립공원 탐방로
- 안 내 자 : 국립공원 해설사 角田富男 (가부다 氏)

❑ 주요내용

쿠시로 습원 (국립공원)

- 위　　치 : 홋카이도 동부지역
- 면　　적 : 287.8㎢ (동서 25km, 남북 36km) * 일본 최대 습지

  * 7,00ha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
- 등　　록 : 람사르습지(1980년, 일본 제1호), 국립공원(1987년, 일본 제28호)
- 구성생물 : 식물 약 600종, 포유류 26종, 양서류 4종, 파충류 5종, 어류 약 35종, 조류 약 170종, 곤충류 약 1,150종

참 고

▣ 람사르 습지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 보호

○ 2016년 현재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람사르습지로는 대암산 용늪(1997), 창녕 우포늪(1998), 신안 장도 산지습지(2005), 순천만 ·보성갯벌(2006),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2006), 울주 무제치늪(2007), 태안 두웅습지(2007), 전남 무안갯벌(2008),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2008), 오대산국립공원습지(2008),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008),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습지(2009), 충남 서천갯벌(2009), **전북 고창·부안갯벌(2010)**, 제주 동백동산습지(2011), **전북 고창 운곡습지(2011)**, 전남 신안 증도갯벌(2011), 서울 한강 밤섬(2012), 인천 송도갯벌(2014), 제주 숨은물뱅듸(2015), 한반도습지 (2015),순천 동천하구 (2016) 등 총 22 곳

【쿠시로습원 전망대 해설 내용】

- 28,788ha에 달하는 쿠시로습원은 끝없는 평원으로 펼쳐진 저층습지로 수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 약 2만 년 전, 빙하기 마지막 무렵, 구시로 습원은 육지였으나, 그후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바다로 모습을 바뀌었고, 약 6,000~4,000년 전, 바닷물 바닥에 토탄이 쌓이면서 습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약 3,000년 전부터 바닷물이 빠지면서 서서히 현재 습원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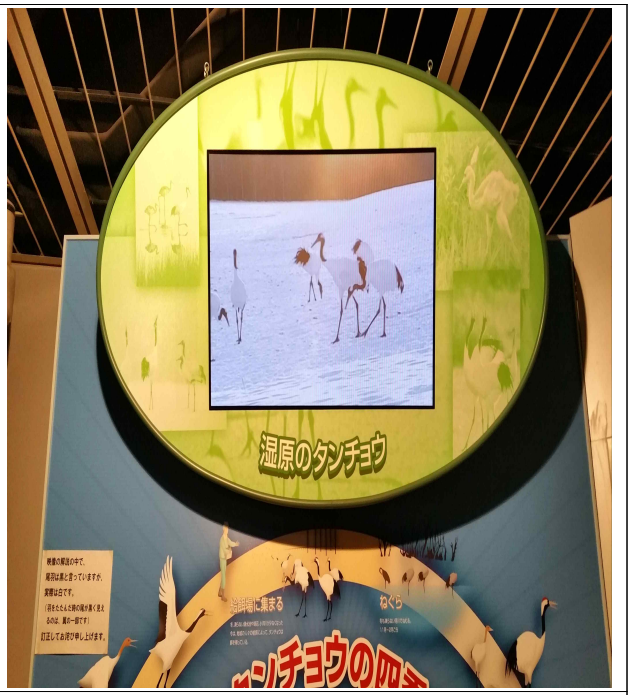
- 습원에는 세 개의 종류의 습원이 있는데, 우선 저층습원. 주위보다 지대가 낮으며 물이 흘러들고 있는 습원으로 갈대와 사초가 자라

는데, 구시로 습원의 80%가 저층습원임 (사진1)

- 구시로 습원에서 유명한 것은 일본의 특별 천연기념물 단정학이며, 기타산쇼우오(네발가락도롱뇽)가 서식하는 유일한 장소임. “빙하기의 생존 생물“ 기타산쇼우오(네발가락도롱뇽)는 생식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데, 단정학과 도룡뇽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의 보존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사진 2)

- 야생 생물의 보호, 습원의 보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구시로 습원 야생 생물 보호 센터“ 일반 전시 시설에서는 야생 생물이나 습원의 보호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패널로 소개하고 있음

- 겨울철에는 국제멸종 위기종인 두루미가 습원에 찾아오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조류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쿠시로시는 철저한 보호책을 시행하여 두루미 개체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사진 1) 안내 패널</td>
<td>(사진2) 천연기념물 단정학</td>
</tr>
</table>

- 전망대에는 각종 희귀생물을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을 세워놓고 몇박 몇일씩 관찰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10번 넘게 온 사람도 있음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탐방로 해설 내용】

- 쿠시로 습지의 4분의 1은 엄격하게 보호되는 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명한 이용(wise use)’ 차원에서 일부지역은 탐방이나 관광을 허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눈의로 습원 내에서 생활하는 생물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탐방로 역시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과 조화되는 목재를 사용하고 인위적인 조경을 최대한 자제하여 구성 (사진 3)

- 구시로 습원에는 “야치마나코“라고 하는 움푹한 곳이 있는데, 홈의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깊이는 4m나 된다고 말해지며 한번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책 시에는 주의가 필요함(사진 4)

<table>
<tr><td></td><td></td></tr>
<tr><td>(사진 3) 목재 탐방로</td><td>(사진 4) 야치마나코</td></tr>
</table>

- 습지 탐방로 주변에는 연못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각종 희귀생물과 두루미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음

참고

▣ 일본의 습지보호 노력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공 섬이나 쓰레기매립장, 농지나 주택용지 조성을 위한 습지 매립 압력이 심한 편이었음. 1984년까지 해안선 총 연장 32,817km 중 55.2% 정도만 인공화되지 않았으며, 1991년에는 293km의 자연해안선이 인공화되어 사라졌음

○ 이후 일본은 자연습지의 보전과 관련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자연보전법, 자연공원법, 조류 및 포유동물 보호법, 희귀동식물 보전법 등이 해당됨

○ 또한 일본에서는 1980년 쿠시로 습지를 첫 람사르보호 습지로 지정한 이후 주요 철새도래지인 10곳의 습지 지역을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람사보호 습지 중에는 이탄지, 호수, 연못, 조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포함되어 있음

❑ 착안사항

◉ 습지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보루'이자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하는 습지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짐
- 갯벌, 늪, 연못, 저수지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걸러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역할을 함에도 이러한 습지에 대해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으로 인식해 경작지·택지·산업용지 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새만금의 갯벌도 개발지상주의에 따라 사라졌지만, 새만금에서 야기된 갯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쟁은 매년 갯벌지역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느는 등 갯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였음

- 우리 지역 백석제(군산)가 병원부지에서 생태공간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례는 최근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례
- 정부와 지자체 모두 습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최소화 하면서도 이를 관광자원으로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느꼈음

◉ 관광 트렌드의 변화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전가치가 우수한 자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실제 쿠시로습원 일대도 국립공원 및 람사르습지 지정으로 생태계 파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대로 보전하면서', 멸종위기의 생물을 복원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관광객, 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함
- 우리 지역도 고창 운곡습지, 고창·부안 갯벌, 동부산간 지역을 개발하면서 '무늬만 생태관광' 등 생태관광이라는 용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존의 관광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생태계 훼손을 정당화하고 면죄부 역할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 생태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협조가 필요함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 필요

❑ 방문사진



쿠시로습원 유래 설명·청취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안내표지판



국립공원 탐방 시작



습원내 생물 설명·청취



기념촬영(전망대 앞에서)

5 다테시 안심하우스

❑ 방문목적

- 베이비부커 은퇴자 유치 도시로의 발전전략으로 도시 재건에 성공한 다테시 안심하우스를 통한 노인주거복지정책 이해
- 고령자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안·사고대응·긴급 질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식사·여가프로그램 등 견학

❑ 방문개요

- 일　　시 : 2017. 7. 3(월) 10:00
- 주　　소 : 伊達市 舟岡町 336-3
- 면 담 자 : 안심하우스 四宮 전무
- 내　　용 : 안심하우스 운영상황 설명 → 임대아파트 시설 견학
  → 기념품 전달, 사진촬영

❑ 주요내용

- 안심하우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형적인 노인주거시설로써, 고령화율의 급증에 따라 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약 10만엔의 자부담으로 주거를 제공
  - 10만엔(한화 약 100만원) 고액을 주거비로 납부, 노후대책도 필요함
- 안심하우스의 경우 국비나 시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노인의 주거를 전적으로 주택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
  -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30% 정도의 공실률이 있으며, 일본 사회복지 민영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됨
  - 전후 일본 경제 성장과 두터운 직장가입자 층을 대상으로 일본만이 가지는 독특한 형태 중 하나
  - 따라서 월세 부담능력이 있는 연금수급자만 입주가 가능함

다테시의 안심하우스

• **추진목적**

- 다테시는 초 고령화·인구감소 사회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2001년 행정과 민간 협동으로 「다테 웰 시랜드 구상」을 책정
  -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진행과 동시에, 고령자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 산업과 그와 관련된 고용의 장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노력 → 일본내에서 이례적으로 인구증가하는 도시
  - 이를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고령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심하우스 인증 제도」를 추진

• **서비스 내용**

- 콘시어지 서비스
  (방문자의 접수, 입주자의 전언 등의 중개, 우편물, 택배화물 등의 일시 보관, 의류 등의 청소 알선, 지역사회 활동 등의 안내 소개 등)
- 안전관리 서비스

• **보안체제**

- 낮에는 프런트 직원이 방문자 대응 등
- 야간 등 프런트 직원 부재시는 자동 잠금에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
- 보안 서비스 회사가 24시간 연중 무휴로 안전하게 유지

• **긴급서비스**

- 응급 및 사고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각 연립주택 또는 공용부의 요소에 긴급 버튼을 설치하여 통보는 관리실 및 보안서비스 회사로 보내짐

• **공동욕실**

- 각 거실에 욕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넓은 공동 목욕탕 준비, 느긋한 해방감과 편안함 제공하여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식사서비스(유료)**

- 각 거실에 주방을 설치하고 있지만, 희망에 따라 전임 요리 직원이 균형 잡힌 식사 서비스를 제공

• **커뮤니티 활동**

- 프런트 직원이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

- 안심하우스내 우체통은 보안을 위해 밖에서는 투입만 가능하고 출입문 안쪽에서 꺼낼 수 있는 특수 우체통을 설치하여 운영(사진)

	
바깥 쪽에서는 투입만 가능	안쪽에서만 꺼낼 수 있음

- 각 세대내에 욕실, 주방이 있음에도 공동목욕탕과 공동세탁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목욕과 세탁을 할 수 있고, 공동취사장에서 별도 비용을 받고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거주 노인 비용절감과 편의를 제공

- 노인을 배려한 하우스 설계
  - 각 호실에 비상용 긴급벨을 설치
  - 각 층은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데, 비상시 침대 채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이 깊은 엘리베이터를 운영
  - 각 방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문틀을 없애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사진)

-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에는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온풍기를 설치하여 고령자 건강을 배려하고, 와이파이도 운영 중임

❑ 질의내용

- 8층 건물의 작은 아파트인데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은 몇 명이나

되는지?

↳ 방 2개 짜리에 4가구, 방 1개짜리에 18가구가 거주중임
(총 거실 수는 35개, 공실률 37%)

- 입주 시 연령이나 소득 등 자격조건이 있는지?

↳ 60세 이상 입주가능하며,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월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연금수급자만 입주할 수 있음

- 케어메니저가 상주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알고 있는데, 케어메니저는 노인 수 대비 배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입주자가 많지는 않아 케어메니저는 1명을 두고 있으며, 24시간 거주하고 있지는 못하고 케어메니저 퇴근 후에는 보안회사가 긴급서비스를 대신하고 있음

↳ 긴급벨이 각방에 설치되어 있고, 케어메니저 퇴근 이후에는 경비회사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임

- 안심하우스 입소자 부담은 어떻게 되며, 정부 지원은 있는지?

↳ 입소자는 월세 10만엔, 식사비는 별도로 3만엔을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은 따로 없으나 1년에 18개월치(6개월분은 보증금 성격)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은 없음

↳ 다테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료 노인 홈도 있으나 안심하우스보다 월세가 비쌈(월 12~13만엔 정도)

- 다른 지역에도 안심하우스가 있는지, 인증조건은?

↳ 현 안심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테역 앞에도 안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허가는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나, 긴급

연락망은 반드시 구축해야 함

↳ 다테시 실시요강에 따르면 ① 임대 주택의 호수가 한 채 당 5호 이상, ② 각 호실 바닥 면적이 40㎡ 이상, ③ 내화설비를 갖출 것, ④ 각 호실에 부엌, 수세식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및 욕실을 갖출 것, ⑤ 2층 이상 건물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⑥ 임대 주택의 관리 기간이 10년 이상, ⑦ 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인 자, ⑧ 비상 대응 서비스를 위해 야간을 포함한 긴급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조치 강구 등

❑ 착안사항

◉ 임대주거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인증제도

- 다테시가 건물의 정비 및 관리 방법에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복하는 민간 주택을 「다테 버전 안심하우스」로 인정하고 다테시의 홍보책자・홈페이지에 소개
- 지자체에서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인증함으로써 고령자가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게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 안전성 확보
- 지자체가 고령자 임대아파트를 인증하고 홍보하여 노인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은 은퇴 후 귀촌이 증가하는 우리 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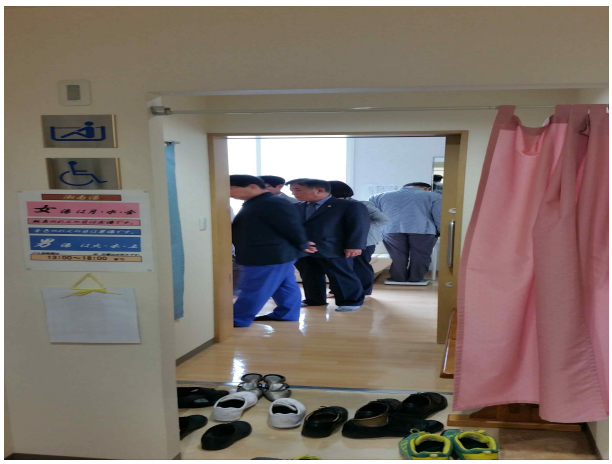
◉ 지역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노인주거시설

- 노인임대주택은 일종의 양로원 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써 기피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적
- 오히려 안심하우스를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하여 고령자가 쇼핑, 의료, 문화시설, 공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방문사진



운영현황 설명·청취



공동목욕탕



각 방에 설치된 비상벨



침대 이동 가능한 폭이 깊은 승강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안심하우스



기념촬영

6 기타 탐방지역

❑ 오도리 도시 공원

◉ 주요내용

- 삿포로 시가지 중심에 있는 도심공원으로 동서로 1.5km 산책로를 조성. 폭 67m 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삿포로의 번화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음. 공원의 중심에는 라일락 등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정원이 있으며, 화단·분수·잔디밭 등이 나란히 이어져 있음

- 1년 내내 다양한 축제(5월 라일락축제, 7월 비어가든 등 삿포로여름축제, 겨울 삿포로눈축제)와 볼거리들이 이어지고 있음

- 오도리공원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도심의 휴식장소로 정비되어 시민에게 휴식의 장소 및 국제교류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음

◉ 착안사항

우리도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경우 광장으로서 축제장소, 휴식장소, 관광장소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심형 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가 필요

	
시계탑에서 바라본 오도리 공원 전경	도심을 관통하는 오도리 공원

❑ 모에레누마 공원 (前 쓰레기매립장)

◉ 주요내용

- 홋카이도 삿포로시 히가시구에 있는 반원형태의 도시 습지 공원
- 원래 쓰레기폐기장으로 이용되었으나, 1988년 세계적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가 설계에 참여하면서 독창적인 공원으로 다시 탈바꿈
- 1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2005년 7월 개장하여 현대적이고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음
- 189ha 달하는 부지에 모에레산과 놀이터, 15개의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야외무대와 음악연주홀 등이 있음
- 모에레누마 공원은 친환경 공원으로 관리되는데, 공원 산림을 가꾸는데 농약을 이용하지 않으며, 태양열과 눈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열려 여행객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음

◉ 착안사항

과연 이곳이 쓰레기 매립지였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었는데, 향후 매립이 완료되는 매립장의 활용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음

	
공원입구, 공원 상징 조형물	공원 전경

❑ 유바리 시 (破産 지자체)

◉ 주요내용

- 삿포로시에서 홋카이도 동부의 쿠시로 지역으로 이동을 위해 머물렀던 도시
- 메이지 시대부터 탄광이 많아 석탄 산업으로 부흥했던 도시였으나, 7~80년대 이후 석탄산업이 붕괴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석탄박물관 등 공공시설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일본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 관광객 감소로 쇠락하기 시작
  - 2002년 당시 6선이던 나카다 시장 타계후 “투자없이는 유바리를 재생시킬 수 없다”라면서 공공시설을 확충했으나
  - 무리한 테마시설, 리조트, 호텔 난립을로 오히려 적자 지속하고 적자를 분식회계를 통해 무리하게 막아보려 했지만 역시 실패
  - 시장 타계이후 실체가 공개되면서 결국 시가 파산
- 파산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지방세는 두배가 올라 일본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 최저 수준

  (지방공무원 30% 감축, 시립병원 야간진료 폐지, 도서관 폐지 등)
- 시를 살리기 위해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케이스

◉ 착안사항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고, 주민과 공무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 후라노 팜 도미타

◉ 주요내용

-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던 지역에 라벤터 농원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연간 9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며, 지역주민 130명을 고용하고 연간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라벤더 아이스크림은 비쌌지만(300엔) 잘 팔렸으며, 라벤더 향수공방도 별도로 운영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음
- 도미타 팜은 산 지형의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라벤다 등 허브를 재배하여 경관 자원으로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생산된 라벤다 등을 이용하여 향수, 오일, 아이스크림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

◉ 착안사항

우리도 경관작물 식재를 장려하고 이 생산품을 활용하는 이른바 6차 산업의 농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낌

❑ 쇼와신산

◉ 주요내용

- 1943년 말부터 1945년 가을 사이에 자주 일어난 지진과 대지의 유기, 분화로 이루어진 높이 50m의 언덕
- 산 전체에서 흰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활화산이며, 종상화산
- 그때는 2차세계대전의 혼란 중이고, 당시 보리밭이었던 쇼와신산의 분화는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겨져 방치되고 있었던 상황
- 그러나 현지 우체국장이었던 미마츠마사오는 사비를 들여 화산의 탄생에 대해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남겨 놓아, 전쟁이 끝난 후에 천연기념물로 남을 수 있게 했음

◉ 착안사항

지역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기록으로 인해 방치될 뻔했던 자연유산이 천연기념물로 남게 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사례

Ⅲ 총 평

○ 연수를 준비하며

- 환경복지위원회 현지의정활동 경험과 일본 선진 사례 비교를 통한 전북도의 발전적 정책방향 모색 목적
- 농촌지역 분포, 인구규모 등 전북도와 여건이 비슷한 북해도를 연수지역으로 결정, 환경・복지・생태관광 분야 연수 진행

○ 환경분야 착안사항 (치토세시 환경센터)

- 쓰레기 소각장임에도 악취・해충없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우리 도내 쓰레기 소각장과 비교
- 종량제 봉투에 알기쉽게 그림으로 쓰레기 종류를 그려 넣은 점, 어플리케이션 활용으로 분리수거 날짜를 알려주는 세심함
- 고온처리, 급냉, 집진, 약품처리 등의 기술처리 강화 및 분리수거 철저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 저감 노력

○ 복지분야 착안사항

(삿포로시 보건복지국, 사회종합복지센터, 다테시 안심하우스)

- 예산부담이 있어 일본내 다른지역에서는 폐지 추세에 있는 경로우대승차증제도를 삿포로시에서는 지역실정을 우선하여 연간 35억엔의 예산을 들여 여전히 시행
- 어느 누구도 고립된 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념에 따라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제설작업을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시민 한 명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
-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임대주거시설에 대하여 인증・홍보하고 안전한 거주를 보장하는 노인주거시스템

○ **생태관광분야 착안사항 (쿠시로습원 국립공원)**

- 일본 제1호 람사르등록 습지 견학으로 과거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에서 생태계의 보고, 자연의 콩팥으로 인정받는 습지 중요성 재발견
- 개발억제와 보전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환경파괴적인 개발지상주의 관광에서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생태관광으로 관광트렌드 변화 실감
- 도내에서 생태관광지 조성할 경우 무늬만 생태관광으로 생태계 훼손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를 경계하고 진정한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 **기타 착안사항 (오도리 도심공원, 모에레누마 공원, 유바리시, 팜도미타)**

- 오도리 공원을 돌아보며 도심내 축제・휴식・관광장소 및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심형 공원 필요성 공감
- 모에레누마 공원을 돌아보며 과거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었는지 새삼 놀라면서, 향후 공원을 조성할 때 이 만큼은 해야된다고 기대치 상승하는 계기
- 파산으로 황폐해진 유바리 시 모습에서 잘못된 정책이 주민과 공무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면교사
- 팜 도미타 농장을 돌아보며 경관작물 식재를 장려하면서 여기 생산품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6차 산업 개발과 활성화 노력에 공감

○ **연수를 마치며**

일본의 선진 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선진국이다는 자부심도 생기면서, 한편 약자와 자연, 지역현실을 배려하는 일본의 세밀한 제도와 질서정연한 시민의식은 우리가 여전히 배울 사항임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음